꽃피는 봄 '꽃테라피' 하자

metro

메트로 2014년 4월 28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드라마·예능 방송 정상화

총리 사의… 대폭 개각 이어질까

"미숙한 초동대응·수습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야, 무책임한 처사 비난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분이 희생됐다.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초동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비통함에 몸부림치는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 여러분의 슬픔과 분노를 보면서 저는 국무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는 길이라는 생각이었다"며 "진작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자 했으나 우선은 사고수습이 급선무고, 하루빨리 사고수습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의 이날 사의 표명은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열하루 만이다. 또 지난해 2월26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취임한 이후 426일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 총리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고 수습 이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구조작업과 사고 수습으로 이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 이후 수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각설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물러나는 정 총리 정홍원 총리가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 사의 표명과 관련해 학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에서 얻고 있는 내각 총사퇴론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러나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태를 책임져야할 총리가 사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야권 역시 "총리의 사퇴가 가족과 국민의 슬픔을 덜어드리기보다는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번 참사의 근본 배경에는 공직 사회의 무능과 무책임, 수익만 커쳐먼과 부패가 있음을 국민은 보았다. 이는 관료를 지휘하는 내각의 책임"이라면서도 "가뜩이나 총체적 난국상에서 총리가 바뀌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국회가 새로운 총리 인준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겠는가. 이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인가"라며 각을 세웠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정 총리 사퇴, 관심없다" "국무총리 사퇴, 그만두면 장땡인가" "총리 사퇴로 정부가 책임을 벗을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민준기자 mj.kum@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 패밀리 특별판 배포

메트로신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패밀리 특별판'을 제작, 25일 수도권 지하철 역 및 50여 개 대학가에서 배포했다. 사진은 4호선 총신대입구 역에서 특별판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

국토부, 재난 상황별 매뉴얼 전면 개편

국토교통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항공·철도·도로 사고 등 재난 상황별 초동조치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사고 직후 골든타임 때 현장 관계자 각자가 수행해야 할 일들을 읽기 쉽게 정리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400여 곳, 건설현장 570여 곳 등 전국 4000여 곳 현장에 대해 2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재난대응체계,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점검을 포함한 종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인명구조에 대한 결정적인 초동조치 매뉴얼도 새로 쉽게 만든다. 특히 그간의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고 직후 골든타임에 현장관계자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알기 쉽게 정리할 계획이다.

그간의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된다. 지금까지 협력 단계 등에 안전업무를 관행으로 위임·위탁한 경우 관리감독을 엄격히 해 왔는지 확인키로 했다.

연간 단위로 해오던 재난훈련도 수시실시 체계로 전환된다. 사고발생 시 재난 관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중이라도 10분 또는 20분의 짧은 시간을 활용해 수시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사고대응 도상훈련도 진행된다. 철도, 항공 등 분야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대형 재난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5회에 걸쳐 장관이 직접 안전 관계자들과 도상훈련을 하기로 했다.

/박선호기자

오바마 증정 목련 묘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단원고에 전달한 목련묘목이 29일 오후 단원고 정문 부근에 심어져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유병언 자금줄' 옥죄기

페이퍼컴퍼니서 수백억 비자금 조성… 회계법인 4곳 압수수색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주요 자금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전날 수년간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회계 감사를 해 온 한 회계법인 사무실 등 4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4시간여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청해진해운 관계사들과 관련된 회계장부와 하드디스크 등 경영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회계법인이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수상한 돈 관리를 눈감아준 단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법인이 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포착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부실 감사 과정에서 유 전 회장 일가의 직·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유 전 회장 3부자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계열사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이들의 페이퍼컴퍼니는 유 전 회장의 붉은머리오목눈이,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SLPLUS', 차남 혁기(42)씨의 '키솔루션' 등 3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5일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를 소환한 데 이어 외국에 체류 중인 차남 혁기씨의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혜경(52)씨 등 유 전 회장의 최측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세월호' 관련법 줄줄이 처리

여야 국회 정상화 당내 경선도 재개

세월호 참사로 멈춰 섰던 국회 운영이 참사 발생 2주만인 이번 주부터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다.

여야는 원내 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이번 주부터 국회를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세월호 구조활동과 희생자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이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 해상안전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상정된 상태다.

이들 법안 외에도 대형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 안전강화를 위해 후속 대책을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이번 주부터 6·4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도 재개한다.

/김민준기자 mjkim@

끝없는 추모 행렬 27일 오후 침몰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를 위한 임시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경기도 안산 올림픽기념관을 찾기 위한 추모객들이 기념관 인근 고잔초등학교 운동장까지 긴 줄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정보MOU '북핵·미사일' 한정

"국가 간 아닌 기관 간 약정"

군 당국은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만 공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은 정부 내 실무논의를 거친 뒤 관련국과 실무협의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 실무협의가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 MOU를 체결하더라도 공유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에 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정보공유 MOU는 과거 국가 간 협정으로 추진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달리 기관 간 약정의 형태가 될 전망이다.

군 당국이 한미일 정보공유 MOU 대상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한정하고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기관 간 약정으로 검토하는 것은 국내 반대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민준기자

한·미 정상 "북핵 강력대응"

북 "구정물 망발" 원색 비난

북한이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원색적으로 맹렬히 비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한 "북남관계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박근혜는 오바마를 만나 우리 체제와 병진노선,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시비하면서 온갖 악담을 다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북한 발언과 관련해 '청부지 계집애', 구정물 같은 망발' 등 입에 담지 못할 저속한 표현을 썼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양국의 우호를 과시했다. 한미 정상이 한미연합사를 함께 방문한 것은 1978년 연합사 창설 이래 처음이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 시 한미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한반도 방위에 힘을 쏟고 있는 연합사 장병들을 격려했다.

두 정상은 "만일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장거리미사일 실험이라든지 핵실험 또는 그 두 개 다라면 우리는 추가적인 압력 방법을 찾을 것" 등으로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유동준기자

세월호 진료비 지원 확대

세월호 탑승자의 형제 자매에게도 진료비가 지원되고, 지원 증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부상자와 실종자 가족 등 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3일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인력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교직원 등으로 정한 바 있다. 가족의 범위는 건강보험 가입기록의 동일 세대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 중 형제와 자매 등에도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족 범위에 탑승자의 형제자매와 탑승자 배우자의 부모, 탑승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인척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윤다혜기자

야, 기초연금법 당론 최종 수렴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최종 당론을 수렴한다. 이로써 그동안 여야간 평행선을 달려온 기초연금 도입 논란의 돌파구가 마련될 이번 4월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의총에서 새누리당이 최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실상 최후통첩한 절충안을 놓고 최종 협의한다. 이 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선 연금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365만명이 매월 기초연금 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는 6·4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여당의 절충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 쪽으로 입장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절충안이 저소득층에 대해 연금액을 더 지급하도록 해 야당이 요구한 소득연계를 상당 정도 반영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민준기자

'양심'까지 팔아버린 범죄

가족행세 구호품 빼돌려 · 공무원 사칭까지

전남 진도경찰서는 27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며 구호물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마련된 자원봉사자 천막에서 구호물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세월호 침몰 이후 2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종자 가족이 모인 진도 실내체육관,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으로 행세하며 구호물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남도 공무원을 사칭,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는 현장에 식재료를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상인 3명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400여만원을 챙긴 박모(30)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게시판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선동꾼으로 표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석모(29·무직)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실종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색이나 구조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김현정기자

야속한 날씨 세월호 침몰 12일째인 27일 기상악화로 수색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전날 오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 해군해경 잠수요원이 고속정을 타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비바람에 실종자 수색 난항

이틀째 시신 1구만 수습 · 진도 팽목항 눈물만

세월호 침몰 사고 12일째인 27일 세월호 사고 현장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등 날씨가 궂어져 수색작업에 차질을 보였다.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진도 사고 해역에는 비와 함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파고도 높게 일었다. 오후 들어서도 바람이 초속 10~14m로 강하게 불었고, 파고도 2~3m로 높아졌다. 사고해역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전날 104명의 잠수사를 투입해 수중 수색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되는 등 기상 상황이 악화돼 27명만 잠수했다"며 "4층 선수를 중심으로 수색했지만 사망자를 추가로 수습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역시 기상여건이 안좋아 수색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객실 문이 부유물로 막혀 있고, 일부 객실은 해저면과 닿아 있는 좌현으로 문이 나있다는 점도 수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추가로 시신 1구를 수습했을 뿐 오후 9시 현재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사망자는 188명, 실종자는 114명으로 답보 상태다.

수색작업에 난항이 계속되자 진도 팽목항은 실종자 가족들의 눈물과 한숨이 이어졌다.

한편 전날까지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신원 미확인 사망자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대책본부는 "사망자 신원이 모두 확인돼 1명을 제외한 186명을 가족에게 인도했고 1명도 곧 인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홍역환자 80% 해외감염

서울시는 올해 동남아시아 여행 또는 여행객을 통해 홍역에 걸린 환자가 4명으로 확인됐다며 해외여행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서울에서는 5명의 홍역환자가 발생했다.

1명은 해외여행 중에 감염됐고, 3명은 여행객이 전파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

전국에서는 총 114명이 홍역 확진을 받았으며, 이중 91명(80%)이 해외여행 또는 여행객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홍역이 유행하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여행할 소아, 청소년은 홍역백신(MMR)을 2차까지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출국하라고 당부했다.

시는 또 여행 전에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를 통해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illegible]

수사본부 칼끝 이제 '해경'으로

진도 VTS·상황실 압수수색 · 선원 15명 전원 구속

선장 등 주요 승무원 15명을 구속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칼끝이 이제 해양경찰로 향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26일 해양경찰이 운영하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하고 '업무태만'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하루 만인 27일 해경 상황실도 압수수색했다.

목포해경 상황실은 최초 신고자에게 위도·경도를 물어보며 시간을 지체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수사본부는 매뉴얼대로 신고 접수했는지, 시간대별 조치 내용, 진도 VTS와 연계 체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수사본부는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조타수 박모(59), 오모(57)씨, 조기장 전모(55)씨, 조기수 김모(61)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승객들을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주요 승무원 모두가 사법처리됐다. /윤다혜기자

조문객 5일만에 12만명

세월호 침몰사고 임시 합동분향소가 문을 연 지 닷새째인 27일 조문객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누적 조문객 수는 12만3000여명을 넘어섰다. 추모 문자메시지도 7만4000여건 도착했다.

분향소에는 희생자 143명의 영정 사진과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이날 오전엔 최초 신고자로 의사자 지정이 검토되고 있는 최덕하군을 비롯해 안산·시흥·수원 등 장례식장 15곳에서 단원고 학생 27명의 발인이 치러졌다. 최 군의 발인은 오전 6시 안산산재병원에서 진행돼 안산하늘공원에 안치됐다. /윤다혜기자

검찰 송치되는 세월호 선장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아온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가 27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서, 올해 1만2936개 일자리 창출

서울시 강서구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 한해만 1만2936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구는 취업지원서비스 9616개, 공공일자리 2890개, 직업훈련 추진 249개,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181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구는 이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민간·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및 미스매치해소 ▲시역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훈련 ▲일자리 인프라 구축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핵심 추진전략으로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계획이다.

민간분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마곡지구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들과 구민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오른쪽)이 구청 지하1층 홀에서 구직신청을 한 주민들에게 일자리 정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마곡지구 내에는 LG사이언스파크, 대우조선해양, 코오롱, 롯데 이랜드 등 55개의 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고용 유발 효과가 약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강서구는 내다봤다.

노인과 장애인,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구는 총 22억원을 투자해 CCTV 상시관제 모니터링 요원, 강서거리 환경지킴이, 실버카페 등 29개 직종 1129개 일자리를 마련한다.

묵은 때 벗는 '천년향'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직원들이 서울 서초역사거리에 위치한 향나무 '천년향'에 쌓인 먼지와 자동차 매연 등을 벗기는 물세척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졸자 다시 전문대로

전년 대비 40배 … 실용음악과 185대 1

2014학년도 전문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7.7대 1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전국 전문대학 137개교의 입시 결과를 취합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7.7대 1, 평균 등록률은 97.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경쟁률 7.5대 1, 등록률 97.6%와 비교할 때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의 경쟁률은 11.2대 1, 지방은 5.2대 1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뚜렷했다. 평균 등록률 역시 수도권이 100%였던 데 비해 지방은 96.5%로 다소 차이가 났다.

학과별로 보면 실용음악학부와 연기과의 경쟁률이 각각 185.4대 1, 112.9대 1을 기록해 1, 2위를 차지했다. ▲항공서비스과(59대 1) ▲문예창작과(38.8대 1) ▲간호과(32.3대 1) ▲유아교육과(30.2대 1) ▲사회복지과(27대 1) 등도 인기가 높았다.

4년제 대학 졸업 후 전문대학에 재입학하는 이른바 '유턴 입학생'이 등록자 기준으로 1283명이었으며, 이는 전년도(30명)보다 40배가량 급증했다.

2014학년도 합격자 중에서 고교 교사 출신으로 퇴직 후 사회봉사를 위해 신성대학 사회복지계열에 입학한 이화산(57)씨가 눈길을 끌었다.

과학고와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한의사로 활동한 정아름(26)씨는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서울예술대 실용음악과에 입학해 관심을 샀다. /윤다혜기자 yd@metroseoul.co.kr

초혼 100쌍 중 4쌍 '10살 이상'

연상남은 점차 줄어

지난해 처음 결혼한 부부 100쌍 중 4쌍은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의 201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초혼 부부 25만5000쌍 중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 부부는 1만1000쌍(4.3%)이었다.

남자가 10살 이상 연상인 부부는 1만700쌍(4.2%)이고, 여자가 10살 이상 많은 부부는 300쌍(0.1%)이었다.

나이 차가 10살을 넘는 부부의 비율은 ▲2010년 5.8% ▲2011년 5.0% ▲2012년 4.7% ▲2013년 4.3%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남자가 10살 이상 연상인 부부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가 10살 이상 연상인 부부는 2010~2013년 매년 300쌍 정도로 변동이 없고 전체 초혼 부부 중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0.1%로 일정했다.

이에 비해 남자가 10살 이상 연상인 부부는 ▲2010년 1만4400쌍 ▲2011년 1만2700쌍 ▲2012년 1만1800쌍 ▲2013년 1만700쌍으로 줄었다. 전체 초혼 부부 중 비율도 ▲5.7% ▲4.9% ▲4.6% ▲4.2%로 낮아졌다. /윤다혜기자

연등만들기 삼매경 부처님오신날(5월6일)을 앞두고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외국인들이 연등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장터 참가 중기 모집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제5회 서울시-G마켓 2014 지구를 살리는 착한 녹색제품전'에 참여할 녹색중소기업을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한다.

'지구를 살리는 착한 녹색제품전'은 서울시와 SBA가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녹색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이다.

서울시내에 위치한 친환경제품, 에너지 저감 등 녹색제품을 보유 중이거나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하면 온라인 장터 운영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픈마켓 실무교육과 SBA 유통망을 연계한 판로개척을 추진하는 '녹색유통망시스템'을 통한 지원도 병행된다.

모집은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SBA 홈페이지(http://sba.seoul.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green@sba.seoul.kr)로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SBA 홈페이지, SBA 점포지원팀(02-866-52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렁이 활용 폐기물 처리

서울여대는 최근 교내 앞 잔디밭에서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에게 '헛! 지렁이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쏜다!'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교내 식당 등에서 발생한 음식 폐기물과 낙엽을 지렁이가 대신 처리해 절감된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27개월 동안 발생한 음식 폐기물 5992.5kg과 낙엽 1516kg을 지렁이의 먹이원으로 사용했다.

행사장에서는 간식을 나눠줄 뿐 아니라 교내 전반 줄이기 실천 서명운동도 함께 실시됐다.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서울여대 에코캠퍼스 추진사업단과 사무처 시설관리팀이 2011년 6월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폐기물 자원화 순환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가구당 한달 2권도 안 사

도서구입비 월 1만8690원 … 11년來 최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가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계가 책을 사는 데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1만8690원으로 전년(1만9026원)보다 1.8% 줄었다. 이는 조사 대상이 2003년 전국 가구로 확대되고서 최저 수준이다. 가구당 한 달에 구입한 책이 2권도 안 되는 것이다.

가계의 도서 구입 지출비용 추이를 보면 2003년 월 2만6346원에서 2004년 2만1325원으로 떨어진 뒤 2만~2만1000원 선을 맴돌다가 2012년 2만원선 아래로 더 내려가 1만원대에서 2년 연속 머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마다 시행하는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2013년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9.2권으로, 2011년보다 0.7권 준 것으로 집계됐다. /김민준기자 mkim@

'지방대 몰락' 현실화 되나

대학 정원 감축 양극화

대학특성화사업에 따른 대학의 자율적인 입학정원 감축 결과 지방대학들이 서울 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훨씬 큰 폭인 7~10%를 감축하기로 해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이 지방대 죽이기가 될 것이란 비판이 현실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전국 56개 대학의 대학특성화사업에 따른 정원감축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수도권 지역의 대학과 그 밖의 지방대학 정원 감축계획이 뚜렷이 대비됐다.

조사 대상의 서울·경기 지역 대학 17개교 가운데 6개교가 정원 감축 계획이 없었고, 10개교의 감축률은 4%, 1개교는 5%였다. 하지만 지방대는 39개교 가운데 2개교만 4% 줄이기로 하고 나머지 37개교는 7%(18개교) 또는 10%(19개교)라는 고강도 감축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교육부의 대학구조평가가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대학의 예측이 반영된 셈이다.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의 대학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다혜기자

황당한 대학병원

"있는 약도 안 써 뇌손상"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약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오판하고 위독한 신생아를 방치한 탓에 아기와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군과 부모가 인하대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소송에서 "원고들에게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7년 A군은 청색증을 보여 응급실에 실려왔으나 의료진은 약을 구할 수 없다고 오판하고 방치해 A군은 뇌손상을 입었다. /윤다혜기자

일본 '자위대법' 일부 개정

무력공격 대처법 등 5개 먼저… 하반기 신속 처리 위해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일부 법을 우선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7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조만간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관련법 5개를 개정할 계획이다.

자위대법은 외국의 조직적 도발이 무력 공격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자위대가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PKO협력법은 자위대가 외국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신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이 11가지이지만 일본 정부가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 작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먼저 손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개정안을 통해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등 외딴 섬을 점거하는 경우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전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자위대가 경찰권에 기반을 두고 치안 및 해상 경비 활동을 하도록 하며 무기 사용에 상당한 제약을 둔다. 하지만 '대항 조치'가 신설되면 무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요미우리는 또한 어민으로 위장한 특수부대 등이 몰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상륙하는 경우 무력 공격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위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으로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헌법 해석 변경에 앞서 이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집단자위권이란 표현 대신 환경 정비 등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싱싱한 봄풀 좀 먹어볼까 27일(현지시간) 헝가리 호르토바지에서 한 양치기가 전통에 따라 봄에 새로 돋은 풀을 먹이기 위해 양떼를 이끌고 다리를 건너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В столице учили толерантности

내 마음 속까지 보는 걸까?

metro Russia

모스크바 '별난 거울' 화제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거리 한 가운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별난 거울이 설치돼 화제다.

플래쉬 몹의 일종인 이번 행사를 기획한 발레리 자보로프스키는 "이 거울은 특별하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모습이 뒤틀려 보이거나 우스꽝스럽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다가가길 꺼려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거울을 통해 평범한 모습이 아닌 자신을 들여다 봄으로써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깨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울 위에는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문구가 크게 붙어있다. 이를 본 시민들은 호기심에 거울 쪽으로 다가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보거나 사진을 찍었다.

거울을 들여다 본 한 시민은 "거울 속 내 모습을 본 순간 마음 속에서 뭔가가 꿈틀한 느낌"이었다며 "평소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떤 마음 가짐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러시아에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과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울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여러 곳에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드미트리 벨야예프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저온테라피'로 동안 만들기

metro France

영하 80도 탄력 유지

남프랑스 니스에서 동안을 만들어주는 '저온테라피'가 인기다.

재단에 장 자크 포마토 박사가 개발한 저온테라피는 영하 80도에 단시간 노출되는 것을 통해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랑스에서 처음 선보인 이 기술에 대해 박사는 "이러한 방법은 동양에서 많이 쓰여왔다. 특히 많은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시술 이전 상담을 받으면 환자는 속옷을 제외하고 모두 탈의한 뒤 영하 80도의 방에 들어가게 된다. 영하의 온도를 느끼는 시간은 오로지 3분이다. 짧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피부에 탄력을 주는데 적합하다. 박사는 "일단 방에 들어가면 신체 온도가 17도까지 내려가고 세포와 재생기능이 멈추게 된다. 이후 방에서 나오면 다시 몸 상태가 회생이 된다"고 설명했다.

몸이 재생되는 효과는 강도 높은 운동을 8시간 한 경우와 맞먹는다. 그는 "추위가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근육이 경직되거나 상처가 났을경우 더 빨리 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온테라피는 지방세포를 줄여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에르 볼다키아 부르살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오바마, 이슬람에 손길

말레이 국립사원 방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세 번째 방문국인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사원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첫 공식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이슬람의 상징인 쿠알라룸푸르 국립 사원을 방문했다.

그는 이슬람 예법에 따라 구두를 벗고 기도실 등을 관람한 뒤 사원 옆 '전사의 묘역'을 찾아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의 부친인 제2대 총리 압둘 라작 후세인 등의 묘에 참배했다.

국립 이슬람 사원은 말레이시아 인구 3000만 명의 약 60%를 차지하는 이슬람 신자들에게 성지로 꼽히는 곳이다.

/조선미기자

'소녀상' 반대 이유 있었네

미국 글렌데일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충격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건립에 반대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신문인 글렌데일뉴스프레스는 룰리타 곤살베스라는 여성이 데이브 위버 전 글렌데일 시장이 지난해 식당에서 가슴을 만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시의원으로 일하는 위버 전 시장은 지난해 일본 우익성향 인터넷 방송과 인터뷰에서 "소녀상을 세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해 한인들의 공분을 샀던 인물이다.

이에대해 위버 전 시장은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약 그랬다면 우연한 접촉이었을 뿐"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곤살베스는 1만 달러와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위버 전 시장은 2000달러를 제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market index <25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71.45 (-28.58)	558.48 (-4.64)	2.87 (-0.01)	1040.50 (+1.00)

뉴스&뉴스

황창규 "제대로 일해보자"

● 황창규(사진) KT 회장이 직원들에게 "독한 마음으로 제대로 일해보자"고 독려했다.

27일 KT에 따르면 황 회장은 최근 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명예퇴직으로 수십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한 여들이 떠나게 됐다"며 "KT의 수장으로서 가슴 아프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어 남은 직원들에게 "엄격한 평가와 공정한 보상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겠다"면서 "적당히 대충 살아남자는 타성은 과감히 깨뜨리고 독한 마음으로 제대로 일해보자"고 역설했다. /이재영기자

구글·애플 인텔 담합

● 구글·애플·인텔·어도비 등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종업원들에게 지불한다. 서로 주요 인력을 데려가지 않기로 한 이른바 '스카우트 자제' 담합 혐의로 집단소송에 걸렸다 재판에서 져야 했기 때문이다.

25일(한국시간) 다수의 해외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이테크 피고용인 반독점 집단소송'의 피고들이 합의금을 내놓는 조건으로 원고 측이 소송을 취하하는 데 동의했다.

합의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애플·구글·인텔·어도비 등 4사가 내놓은 합의금이 3억2400만 달러(33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기자

로또복권		제596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8 24 28 35 38 40		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일치	1,144,525,219
2등	5개 숫자+2등보너스 숫자	43,074,597
3등	5개 숫자일치	1,540,036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66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로
서울광고문의 02)721-0851~3
부산광고문의 051)758-2800
독자센터 02)721-9795
2002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56

'음식물 쓰레기'로 전기 만들어 쓴다

음식물 쓰레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국책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27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8월께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내에 5MW급 바이오가스 터빈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할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킨 뒤 여기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로 발전기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동서발전은 우선 5MW 가운데 1.5MW 정도만 음식물 쓰레기로 발전하고 점차 그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한다.

한편 이 프로젝트는 동서발전을 비롯해 총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주관의 산·학·연 협력 연구과제로 2009년부터 총 364억원이 투입됐다.

아직 발전기 상업 운전의 가능성까지 시험하는 수준이지만 업계에서는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2044년까지 연장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2016년 기한 만료 후 폐쇄해야 한다는 인천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를 발전소로 지속 공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선옥기자

청해진해운, 수년간 법인세 '0원'

금융당국, 은행권 불법 대출 점검 나서
유병언 일가 미 부동산 취득 불법 조사

금융당국이 침몰 여객선인 '세월호'의 실소유주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가 청해진해운의 부실 경영으로 이어져 이번 참사가 벌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평가를 받은 구명정 44개 중 1개만 제대로 작동하고 선박 수입에서부터 객실 증축·운항안전점검까지 제대로 된 점검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관세청은 전날 인천지검에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유 전 회장 일가의 모든 비리를 파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해진해운은 최근 몇 년간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은 2009~2013년까지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416억원, 14억9000만원으로 흑자를 냈는데도 이 기간 법인세 지출은 '0'원이었다.

국세청은 세모그룹 계열사들의 장부를 확보해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세모그룹이 1990년부터 미국에 저택을 포함해 145억원 규모의 부동산 5곳을 사들이면서 불법 외환 거래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유 전 회장 본인과 자녀, 계열사 명의로 돼 있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부동산 구매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특히 금감원은 국세청, 관세청과 함께 유 전 회장 일가뿐만 아니라 세모그룹 모든 계열사를 살피면서 불법 외환 거래는 물론, 역외 탈세 전반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세모그룹은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중심으로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21세기, 국제영상, 금오산맥2000, 온나라, 트라이곤코리아 등 11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에 대해서도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또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가 여객 선사에 대출할 때 선박의 불법 증축이나 개조 등 안전 기준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가중해 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산업은행과 경남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청해진해운 등에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출이 있었는지 여부와 대출 채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실질적인 자금줄 역할을 한 세모신협은 신협중앙회를 통해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세모그룹 모든 계열사의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대로 검찰로 이관해 신속하게 수사한 방침이다. /유현정기자 hjeon18@metroseoul.co.kr

휴플러스, '감사선물 모음전' 휴플러스는 다가오는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맞아 5월 14일까지 전국 139개 전 점포 및 인터넷쇼핑몰에서 '감사선물 모음전'을 실시한다. /휴플러스 제공

4대중독법 국회통과 탄력받나

Issue&View 헌재 셧다운제 합헌 파장

박상훈기자 pene@metroseoul.co.kr

모바일게임도 규제 가능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위헌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게임중독법과 같은 추가 규제가 명문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우에 따라 모바일게임에도 비슷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에 던져진 '4대 중독법'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이 성문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4대 중독법은 게임을 마약·도박·알콜처럼 규제해야 하고,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지원법'은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이 게임업계 매출 1%를 중독 치유 기금으로 걷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게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큰 산업이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규제가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언급하는 등 규제 개혁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이 나온 만큼 게임을 규제하는 이들 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게임에도 셧다운제가 적용될 공산도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현재의 위헌 심사가 맞물리면서 2015년 5월 19일까지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이번 판결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스마트폰 게임 역시 규제의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

게임업계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옛 게임산업협회)는 이번 판재의 결정에 대해 "게임 관련 규제 개선 논의에 찬물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IDEA 측은 "정부의 규제개혁과 셧다운제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런 결정이 나와 아쉽다. 게임산업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상처투성이 금융권, 반성과 쇄신모드

은행, 내부통제·윤리 실천… 금감원, 정보·IT보안 강화

최근 노교지점 부당대출 KT ENS 대출사기, 개인정보유출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곤욕을 치른 은행들이 내부통제와 쇄신에 나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문제가 됐던 해외지점의 전결권을 축소하고 내부 감시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는 한편 내부 통제 시스템 재정립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1시 일산의 한 연수원에는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 곳에서는 KB금융그룹의 위기극복을 위한 의견이 오갔다. KB금융은 이날 '반성속의 새출발, 위기극복 대토론회'라는 이름 아래 8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다. 지난해 말 내부 직원의 횡령 사기사고와 해외지점 부당대출 사고 카드사 정보유출 등으로 상처투성이던 KB금융이 쇄신에 나선 것이다.

토론회에 참여했던 임영록 KB금융그룹회장은 "KB금융의 현재와 미래 주역인 임원과 직원들간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KB금융그룹 전임직원은 고객의 신뢰가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반성과 쇄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B금융은 '해외점포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해외 영업점포 지점장의 전결권 한도를 35~50% 가량 축소키로 했다. 또 성과평가제계를 손보는 한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고객관리 번호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최근 발생한 금융권의 사고와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4일 '윤리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우리은행은 부당한 관행 개선, 금융사고 예방, 고객 신뢰 증진,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이순우 은행장은 "금융권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약화된 지금, 금융인으로서 윤리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결의대회를 통해 자성의 시간을 갖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다짐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결의대회가 끝난 후에도 직원들의 윤리실천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부서별로 세부과제를 선정해 실천여부를 점검하고, 임직원 스스로가 동참하고 실천가능한 조직문화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올해부터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신설하고 운영리스크 평가를 반기평가로 변경하는 등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서울영업본부 특강을 시작으로 조직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임 회장은 특강을 통해 사업다각화 및 수익기반 확충, 범농협 시너지 가시화, 리스크관리 고도화, 선도금융회사로서의 경쟁체질 확립, 고객 신뢰회복 등을 통해 올 한해를 농협금융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은행들도 자체적인 내부통제 쇄신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KPI의 내부통제 항목 비중을 13%에서 올해 18%로 상향 조정했다.

임직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성과평가지표(KPI)를 기존의 실적 중심에서 내부통제 고객보호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도 현재 5%인 KPI의 내부통제 비중을 올해 하반기부터 늘릴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 역시 쇄신에 한발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서장 70%를 교체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또 기존 금융서비스개선국을 확대 개편해 전 금융권역 비리 검사를 전담하는 기획검사국을 새로 만들고 잦은 보안사고에 대비해 IT 금융정보보호단도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적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금융정보 정보기술(IT) 보안, 내부감찰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KB금융그룹은 일산 소재 연수원에서 도쿄지점 부당대출,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생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연수를 실시했다. /KB금융그룹 제공

부동산 투자 선호도 1위 '상가'

공급과잉 오피스텔 대신 빈자리 차지

수익형부동산 투자처로 상가가 다시 뜨고 있다. 상가의 경우 경기 부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고 위험 부담이 높아 최근 2~3년 사이 상대적으로 투자가 쉬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밀려 있었다.

하지만 올 들어 공급과잉에 전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까지 발표되며 오피스텔 등의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빈자리를 대신할 투자 상품으로 상가가 자리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금융연구소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하나은행 고객 977명을 대상으로 '2014 Korean Wealth Report'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42%가 투자 의향이 큰 상품으로 상가 및 건물을 꼽았다.

이에 반해 투자용 주택 및 아파트는 10%, 오피스텔은 9%에 머물렀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그간 인기를 끌었던 소형주택의 인기가 상가 건물의 절반 이하로 낮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도 잇달아 상가분양에 뛰어들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센트럴파크 II 상업시설(센투몰)을 분양중이다. 지상 1~3층 3개 동, 총 200개 점포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대며 2년간 총 10%의 임대수익을 지원해 연 6~10%에 달하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상봉동 이노시티 상가를 공급하고 있다. 초고층 주상복합 상봉 프레미어스엠코의 상업시설로서 지하 2층부터 지상 11층까지 조성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323개 판매·업무·문화시설 점포가 스트리트형 상가로 구성되고, 유럽형 테마파크 쇼핑몰 '엔터식스'와 10년간 임대계약을 맺었다. 1억원 초중반부터 분양이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G1·2블록의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내 상가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연면적 6018㎡로 1층에만 상가가 조성되며 3억원부터 분양이 가능하다. GCF와 인천경제청이 들어와 있는 G타워, 포스코건설 본사가 인접했다. 인천아트센터와 출리데이인 송도 호텔도 인접한 것이 장점이다.

/박선옥기자

한적한 대형마트 세월호 침몰 사고 충격으로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이 줄어들고 내수 시장이 가라앉고 있다. 사진은 휴일인 2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한적한 모습. /연합뉴스

3월 미분양, 8년만에 최저

지난달 전국 미분양주택이 8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4만 가구대까지 낮아졌다.

27일 국토교통부는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이 4만8167가구로 전월 5만2391가구에 비해 4224가구 줄어 7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분양주택은 2005년 10월(4만9495가구) 이후 8년 5개월 만에 4만 가구대로 진입하게 됐다.

수도권은 전달(2만9278가구)에 견줘 3196가구 빠진 2만6082가구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서 144가구의 신규 미분양이 발생됐지만 ▲서울 475가구 ▲인천 577가구 ▲경기 2288가구 등 기존 미분양이 소진되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방은 2만2085가구로 집계돼 전달(2만3113가구)보다 1028가구가 줄었다. 부산 1378가구를 포함해 신규로 2038가구의 미분양이 늘었지만 기존 미분양 해소분이 3066가구로 더 컸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은 2만1068가구로 전달보다 1024가구 줄었고, 85㎡ 이하 중소형은 2979가구 감소한 2만7099가구로 파악됐다.

반면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2만758가구로 전월보다 565가구 증가했다.

경기(1348가구)를 중심으로 준공 단지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옥기자

IT업계 승자만 살아남는다

애플·페북·MS·아마존 깜짝 실적 · 기술력·M&A 앞세워 독주모드

"더 위너 테이크 잇 올(The Winner Takes it All)"

전 세계 IT 업계에 '승계의 전설' 아바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 제2의 IT 거품 논란이 시달렸던 IT 선도 기업들이 줄줄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내놨다. 애플(스마트폰·태블릿PC), 페이스북(SNS), 마이크로소프트(SW), 아마존(오픈마켓) 등 각 분야 선두 업체들은 2위 업체들과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며 '승자독식' 구조를 굳혀갈 조짐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올 1분기(1~3월)에 매출 456억 달러(47조4000억원), 영업이익도 136억 달러(14조1508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매출 435억 달러, 영업이익 120억 달러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다.

애플이 이 같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아이폰 판매 덕분이다. 세계 최대 통신사인 중국 차이나모바일에 올 1월부터 아이폰 공급을 시작하면서 1분기 아이폰 판매량은 4370만대로 전체 매출의 57%를 차지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 3770만대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페이스북의 실적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페이스북은 올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72% 증가한 25억 달러(약 2조6012억원)를 기록해 월가 전망치 23억6000만 달러를 넘었다. 전체 광고 매출 중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분기의 53%에서 59%로 확대되면서 순이익도 6억4200만달러에 달한다.

비대한 공룡이란 놀림을 받던 MS도 부활모드다. MS는 올 1분기 매출 204억 달러(21조2262억원), 순이익 56억6000만 달러(5조8711억원)를 기록했다. 이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기대 이상의 실적이다. 이는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가 취임 이후 추진해온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 경쟁력 강화 덕분으로 분석된다.

최대 인터넷소매업체 아마존도 깜짝 실적 행렬에 동참했다. 아마존은 올해 1분기 매출이 197억4000만 달러(20조5400억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다. 순이익은 1억800만 달러로 32% 늘었다. 이는 99달러짜리 '파이어TV'를 선보이는 등 미디어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덕분으로 보인다.

◆2위 업체 실적 기대 이하

반면 선두 탈환을 노리던 업체들은 기대 이하의 실적으로 꿈을 접어야 할 처지다.

전 세계 SW 2위 업체인 오라클은 지난해 12월~올 2월 93억1000만 달러(9조687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쳐 시장 전망치인 93억60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순손실 5억1100만 달러를 기록한 SNS 2위 업체인 트위터는 1분기에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IT업계 한 전문가는 "IT업계의 기술 혁신이 갈수록 힘들어짐에 따라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따라잡기 힘든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특히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지닌 선두업체들이 대형 인수합병(M&A)에도 직극 나서는 등 경쟁의 싹을 아예 없애버리는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KT영업재개 첫날인 27일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영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손진영기자 son@

KT 영업재개 첫날, 분위기 '조용'

세월호 침몰사고 영향 · 홍보활동 자제 공문

세월호 침몰 사고의 영향일까. KT가 영업재개 첫 날인 27일 조용한 분위기 속에 고객을 맞았다. 지난 5일 영업을 재개한 LG유플러스와 디소 상반되는 분위기다.

당시 LG유플러스 영업점(대리점·판매점)은 나레이터 모델을 앞세워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적극 전개하며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2주 가량 지난 이후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 속에 각종 행사들은 취소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KT 역시 본격적인 단독 영업 재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서울 신림동의 한 KT 매장은 이날 오전 조용히 문을 열었다. 전날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벽면에 붙어있는 '오늘부터 KT 단독 영업' 이라는 문구가 전부였다.

이 매장 직원은 가게 앞에 입간판을 설치한 뒤 "오늘부터 KT 단독 영업합니다. 가입조건 보고 가세요"라고 한마디 외치고는 가게로 들어갔다.

비가 오는 날씨 탓도 있었지만 가게 밖에 나와 고객을 유치하려 소리를 지르고 설득하고 음악을 틀어놓는 등 시끌벅적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경쟁사들의 단독 영업 첫 날 분위기와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신림동의 또다른 KT 매장에선 문을 열자 일요일 오전부터 가입 문의를 하려는 고객이 매장을 찾았다. 이 매장에선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스펀지 플랜'과 '전무후무 멤버십' 서비스 등 마케팅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매장 관계자는 "영업재개에 맞춰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조심스럽다보니 우리도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KT 본사에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각종 영업재개 관련 홍보 활동을 자제할 것을 부탁하는 공지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화곡동의 한 KT 매장에선 영업재개를 맞아 외벽과 바닥 등을 대청소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맞으려는 모습도 보였다. /서예진기자 syj459@

"아시아 8개국서 데이터가 무제한" LG유플러스는 28일부터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8개국을 대상으로 무제한 데이터, 음성, 문자를 할인 제공하는 '스마트로밍요금제' 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제공

한국, OECD 28국 중 '임금없는 성장' 최악

실질 급여 줄어드는데 노동생산성 증가 최고

우리나라가 '임금없는 성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가로 꼽혔다. '임금없는 성장'은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반면, 노동생산성은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임금없는 성장의 국제 비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실질 임금과 실질 노동생산성이 서로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명목 임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조정한 한국의 실질 임금(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은 2007년~2012년 사이에 2.3% 줄었다. 1997년~2002년과 2002년~2007년에는 실질 임금이 각각 19.4%와 17.6%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개 국가를 보면 2012년(또는 2011년) 실질 임금이 2007년과 비교해 한국보다 더 많이 하락한 나라는 11개 국가였다. 이중 재정위기를 겪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과 1인당 GDP가 세계 40위권 밖인 나라 등 10개국을 제외하면 실질 임금 하락폭이 한국보다 큰 국가는 18개국 중 영국, 일본, 이스라엘 등 3개국뿐이다.

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근로자 수로 나눈 한국의 실질 노동생산성은 2007~2012년 9.8% 늘었다. 이 기간 한국의 실질 노동생산성은 비교 대상 18개국 중 가장 빠르게 상승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비교 대상 주요국 가운데 노동생산성은 가장 빠르게 늘고, 임금 증가속도는 최하위권에 속했다. /김대균기자 kdk@

라이나생명, 실버암보험 80세 확대

글로벌 보험기업 시그나의 한국 법인인 라이나생명보험(대표 홍봉성)은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가능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 진단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는다.

또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특히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여성전용 보험상품…'여심 흔든다'

중증질환 보장에 노후 준비까지 다양

주요 보험사들이 여성만을 위한 전용 상품을 앞다퉈 선보이며 '여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착안해 여성전용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가정했을 때 노후 의료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중증질환을 평생 보장하는 '교보여성CI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사망, 중대한 질병은 물론 여성특정암에서 임신·출산에 이르기까지 여성에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궁암이나 난소암, 중증루프스신염,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류마티스관절염 같은 여성특정질병을 집중 보장한다. 교보생명은 '우먼케어서비스'를 통해 여성생리주기별 건강관리를 해주는 '우먼 싸이클', 전문간호사가 방문하는 '우먼 너싱', 암 등 중대질병으로 입원시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우먼 헬프' 등의 여성특별 서비스를 종신까지 제공한다.

동양생명은 이보다 앞서 여성전용 연금보험 '수호천사 행복한 여자사랑연금보험'을 내놨다. 남성에 비해 평균 수명이 약 7년 길다는 점을 반영한 상품이다. 일반 연금보험과 달리 연금개시 전에는 여성관련 질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연금 개시 후에는 다양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해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다.

흥국생명은 여성만의 고민을 덜어주는 '(무)시크릿 케어 여성건강보험'을 선보였다. 남성과 달리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외모 특정 상해시 수술 급여금과 입원 급여금을 보장해준다. 여성만의 암질환인 유방암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유방복원지원금도 챙겨준다.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는 여성만을 위해 강력범죄피해 위로 급여금을 보장해주며, 여성들의 갱년기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진단금도 주계약에 포함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맞벌이 여성들이 크게 늘면서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여성전용 보험을 잘 활용하면 노후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mini @metroseoul.co.kr

신종 금융범죄 대처 이렇게…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신종 금융범죄 바로 알기입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총괄기획팀 제파운 선임조사역이 날로 진화하는 신종 금융범죄의 종류와 예방법을 알려줍니다.

신종 금융범죄에서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종류별 수법을 잘 알아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피싱(Phishing)

개인정보(프라이빗 데이터·Private data)와 낚시(피싱·Fishing)의 합성어입니다. 주로 이메일을 통해 4월의 카드 거래내역 등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서를 발송해 가짜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도록 유인합니다.

이후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입력하게 한 뒤 범행계좌로 무단 이체하는 수법을 쓰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스미싱(Smishing)

피싱이 문자메시지(SMS)와 결합한 수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무료 쿠폰제공'이나 '모바일 청첩장'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악성코드를 심어 전송합니다. 수신자가 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부지불식간에 악성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됩니다.

악성코드에 전염된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 모르게 소액결제가 이뤄지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됩니다.

3 파밍(Pharming)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사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됩니다. 가짜 사이트라는 걸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범죄자는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 금융정보 등을 빼갑니다.

4 메모리해킹

PC 메모리에 악성코드가 상주할 경우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보안카드번호 앞·뒤 2자리만 입력해도 부당 인출이 됩니다.

신종 금융범죄에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의 예방 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②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서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설정을 강화한다.

③ 이동통신사에 연락해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한다.

④ 출처 불명의 파일이나 이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한다.

⑤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최신 상태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한다.

⑥ 보안카드 번호는 절대로 전부 입력하지 않는다.

⑦ 정상적인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웹주소를 항상 확인한다.

⑧ 컴퓨터 이메일 등의 공간에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를 절대 저장해두지 않는다.

⑨ 보안카드보다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이용한다.

⑩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한다.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전화(국번없이 1332)

/정리=김현정기자 hjkim1@

"원화강세, 한국만의 상황 아냐"

금융가 사람들

■ 대신증권 김승현 실장

원화가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4월 들어서는 지난 5년 동안 유지되던 지지선 마저 붕괴되고, 1050원을 하향 돌파했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

김승현(사진) 대신증권 글로벌마켓전략실장은 지난 24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화 강세는 최근의 일이지만 신흥국 통화 전반적인 상승은 이미 2월부터 시작됐다"며 "2월 이후 다시 신흥국으로 자본 이동이 시작되면서 한동안 약세였던 신흥국 통화가 강세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통화는 브라질 '헤알화'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로 2월 이후 8% 내외 통화가치가 상승했다.

김 실장은 "원화 강세는 한국만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최근 달러 약세와 신흥국 통화강세 현상에 뒤늦게 따라간 경향이 있다"며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과 대만 두 나라만이 심리적으로 통화강세가 늦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 위안화 환율과 엔화에 영향을 받는 특성도 공통점"이라며 "두 나라 모두 위안화 약세가 진정된 이후에 통화가치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주 우려에 대해 "한국에 대한 투자매력 부활이란 측면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향후 환율 하락폭이 더 커져서 1000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전통적인 원화 강세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주, 은행, 운송, 여행, 외화부채 많거나 중간재·소재 수입비중 높은 유틸리티, 철강 등이 원화 강세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비기자

김현수 법무사의 개인회생 이야기

"법은 융통성이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개인별로 처한 사정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일정한 요건이 있지만 개인별로 어떻게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주느냐는 법무사마다 다르다. 어느 법무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느 법원의 회생위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승인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40대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남편의 경우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팔아 빚을 갚았다. 스톡옵션의 경우 세금을 내게 되어있어 20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그 세금 가운데 일부가 지난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환급되었다. 거의 900만원에 달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세금환급분은 법원에 신고해 나중에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부부는 수중에 현금이 바닥나가고 있었다. 이를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아 최소생계자금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른 변호사나 법무사로부터 들어보니 개인회생의 경우 그런 전례가 없다고 했다. 그렇게 신청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리 없을 것이라고 모두 말렸다.

그래도 딱한 부부의 사정을 고려해 세금환급분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해보기로 했다. 안되면 취하하더라도 일단은 의사표시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바로 받아들여졌다. 이 사실을 알려주니 그 부인이 "고맙다"고 거듭 감사표시를 했다.

법은 이미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되는 구석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융통성은 법원의 회생위원도 갖지만 이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있어야 한다.

http://blog.daum.net/law2008/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

지휘 | 여자경
바이올린 | 림지희
하프 | 김아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5. 8(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metro 메트로신문사
주관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후원 | KDB대우증권 동양증권
하나은행 LIG

석 20만원 / S석 12만원 / A석 7만원 /
5만원 / C석 2만원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SAC Ticket
www.sacticket.co.kr 02 580 13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 1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031-392-6422
www.primephil.net

Shin Young Ok

'스타일에 경제성 더하다' 벤츠 CLS250

■ 벤츠 CLS250

4도어 쿠페 장르 개척 주역 디젤 엔진 얹어 경제성 보강

스타일은 차를 고를 때 중요한 선택 요소 중 하나다. 멋진 차는 한눈에 소비자를 잡아끄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 CLS는 단연 돋보이는 차다. 2003년 '4도어 쿠페'의 장르를 연 주역이었고, 현재는 한층 성숙해진 2세대 모델로 진화했다. 국내에서는 2011년 선보인 후 3500대 넘게 팔리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 더해진 CLS250 CDI는 연비를 강조한 모델이다. 기존의 V6 3.5ℓ 가솔린 엔진 대신 직렬 4기통 2.2ℓ 디젤 엔진을 얹었고,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 51.0kg·m를 낸다. E250 CDI 4매틱 모델과 같은 엔진인데, CLS의 정숙성이 미세하게 앞서는 느낌이다.

새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연비다. 표시 연비는 도심 13.5km/ℓ, 고속도로 19.2km/ℓ로 3.5 모델(도심 8.6km/ℓ, 고속도로 12.5km/ℓ)에 비해 월등히 높다. 2단계로 작동하는 터보차저가 1600~1800rpm(엔진회전수)에서 최대토크를 발휘하는 덕에 중저속 가속에서 특히 강점을 보인다. 이번 시승에서는 12.0km/ℓ를 기록했다.

디젤과 가솔린 모델의 차이는 운전하는 맛에서도 드러난다. 3.5 가솔린 모델은 상대적으로 높은 3500~5250rpm에서 최대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디젤과 비교하면 고회전 활용성이 높다. 디젤 모델은 낮은 회전수에서 툭툭 치고 나가는 맛이 있는 반면에 가솔린 모델은 고속에서 쭉 차고 나가는 게 매력이다.

3.5 모델이 공기를 이용해 감쇠력을 조절하는 에어매틱 서스펜션을 장착한 데 비해 디젤 모델은 가변식 댐퍼인 다이렉트 컨트롤 서스펜션을 장착한 것도 차이점이다. 두 모델 모두 훌륭한 편이지만 승차감이나 핸들링에서는 3.5 모델이 좀 더 우위를 보인다.

CLS250 CDI는 경쟁모델에 비해 경제성에서 앞선다. BMW 640d나 아우디 A7 3.0 TDI는 배기량이 크고 출력과 토크가 더 우월한 반면에 CLS250 CDI보다 연비는 약간 떨어진다. 따라서 운전의 즐거움을 더 중시하느냐, 경제성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선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CLS250 CDI의 가격은 9020만원으로, 3.5 가솔린 모델보다 저렴하다. 국산 대형차인 현대차 제네시스보다는 비싸지만, 제네시스에 없는 디젤 엔진 덕에 경제성이 훨씬 앞선다.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 운전자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모델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한 줄 평가: 스타일이 뛰어나고 경제성도 좋다 ▲평점: ★★★★ (★5개 만점, ☆ 1/2)

<사회 초년생 인기 경소형차·준중형차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illegible]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엑센트신형		1010	1070	1120	1180
	벨로스터			1350	1460	1590
기아	올뉴모닝			840	870	960
	뉴프라이드		1140	1150	1180	1270
쉐보레	스파크		770	740	780	890
	아베오			520	850	1000
현대	아반떼MD		1220	1230	1400	1510
삼성	뉴SM3	970	1020	1080	1250	1450
기아	K3		1580	1080	1350	1510
	포르테	690	980	1050	1150	1230
쉐보레	크루즈			1320	1470	1630

자료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르노삼성 노조 "기본급 인상·고용 보장"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최근 총 대의원대회를 열어 2014년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지었다. 노조 측은 지난 2012~2013년 조합원 및 사원들의 고통분담을 통해 2013년 445억원 흑자로 전환된 점을 강조하며, 조합원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르노삼성 사측은 희망퇴직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했으며 대상범위를 확대해 강제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불응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생산직에서 사무직으로 전환을 종용하거나 노동 강도가 가장 높은 공정으로 강제 전환배치를 23일자로 실시했다.

르노삼성 노동조합은 2014년 요구안에서 기본급 11만970원 인상, 성과급 200% 인상을 요구했으며 고용안정위원회 개최와 고용보장 협약서 작성을 사측에 요구했다. 또한 내수판매 활성 플랜 차원에서 차기 차종조기 확정 및 물량확보, 차기 차종엔진 현지 생산 및 투자도 요구했다. 여기에 현장 근무강도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투자비 확보 등 노동조건 개선을 사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임의택기자

한국GM, 디자인센터 확장에 400억 투자

글로벌 GM그룹 내 세 번째 규모

한국GM이 인천 부평 본사에 디자인센터 확장을 마치고 오픈했다.

지난 25일 열린 공식 오픈 행사에는 GM 글로벌 디자인 에드 웰번 부사장을 비롯, 한국GM 세르지오 호샤 사장,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정종환 지부장 등 회사 임직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GM 디자인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핸드 프린팅을 하고 있다. /한국GM 제공

기존 7640㎡ 규모에서 1만6640㎡로 2배 이상 확장되며 글로벌 GM 그룹 내 세 번째 규모로 완공됐다. 최첨단 디자인 시설을 갖추고 GM의 글로벌 차량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과 모델링 스튜디오 엔지니어링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웰번 부사장은 "한국GM 디자인센터는 글로벌 디자인 네트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의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앞으로도 GM의 미래 제품 디자인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동시에 재능 있고 젊은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고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 투자비 400억원을 들여 완공된 새 디자인센터는 한국GM 디자이너들이 GM의 미래 제품 디자인 전략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GM은 글로벌 GM 내에서 디자인,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7개의 사업장 중 하나다. 한국GM 디자인센터는 쉐보레 스파크, 아베오, 크루즈 등과 같은 GM의 글로벌 베스트 셀링 제품을 선보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새 디자인센터에는 디자이너와 모델러 등 총 200여명이 근무하며 다양한 글로벌 GM 차량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호샤 사장은 "이번 디자인센터 확장이 한국GM의 연구 개발 역량에 대한 글로벌 GM의 투자 의지를 대변한다"며 "한국GM이 GM의 글로벌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제품의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본사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특히 고효율 에너지 설계와 상수도 사용 저감 설비, 친환경 냉매와 재활용 자재 적용 등 친환경 시공으로 미국 그린빌딩위원회(Green Building Council)가 선정하는 에너지 환경 디자인 골드등급 인증(LEED: 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을 받았다. /임의택기자

“진화하는 디스크 치료… 이젠 수술 없이 간단히 끝낸다”

초기 및 중기 디스크 질환은 도수 운동 치료! 말기 디스크 질환은 10분 정도 고주파로 끝!

40대 남자 회사원 B씨는 오랜 직장생활로 허리가 늘 뻐근하고 골반이 무거운 느낌을 받아 회사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회사 근처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찾아 일자허리 및 골반 불균형을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엉덩이 통증과 다리 당김이 심해지면서 B씨는 다시 유명 척추 병원들에서 여러 차례 꼬리뼈 신경 성형술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 역시 가격만 비싸고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을 뿐이다. 아예 수술을 고려하던 B씨는 주변 지인의 추천을 받아 유명 연예인들 및 세계인들이 치료받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조이스병원 교대점을 내원했다.

주치의인 김도연 강남조이스병원 교대점 원장은 일자허리 및 골반 불균형이 오래돼 디스크 증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제4~5 및 제5요추~제1천추 중기 추간판 탈출증으로 B씨의 상태를 진단했다. 이어 B씨는 요추 신경 치료 주사로 간단하게 치료받았으며 척추 도수운동치료센터에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받았던 요추 도수·감압·운동치료를 일주일에 1~2회씩 3개월간 받았다. 현재 B씨는 별다른 통증 없이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다.

◆정확한 진단 후 맞춤형 치료 실시

이처럼 시대가 발전하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아져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견주 통증 및 어깨 통증 증상 등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보다는 가격만 비싸고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만 주는 꼬리뼈 신경 성형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치료술, 주사요법 침치료 등만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치료받은 적이 있는 강남조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증상·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일대 진료를 실시한다. 진단 후 초기 및 중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에는 아픈 부위에 간단히 신경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실시한다.

특히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치료를 선진·세계화했다.

최근 하든싱어로 화제가 된 가수 휘성과 유명 배우가 다닌 강남조이스병원의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은

김도연 강남조이스병원 교대점 원장과 가수 먼데이키즈 리더 이진성 /강남조이스병원 제공

이 병원이 내놓는 대표적 치료법이다. 기존 고주파 열 치료 또는 수핵감압술보다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 치료법은 작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탈출된 추간판을 제자리로 밀어 넣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강남조이스병원은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마주하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 잡는 도수치료와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 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는 운동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현재 강남조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근처 본원 외에 여의도역, 홍대입구역 및 교대역 인근에 분원을 두고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치료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홍대점 (02)336-2200·여의도점 (02)786-2200·교대점 (02)525-2900

/황재용기자

라식수술,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전문의 진료 통해 자신에게 맞는 수술법 찾아야

황금 연휴가 다가왔다. 연휴에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최근에는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술을 받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라식보다 라섹이 안전해?

라섹이 라식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검사 시기부터 라섹을 고집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라식과 라섹은 레이저를 이용해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같은 원리를 이용한다. 안전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라식은 각막에 얇은 절편을 만들어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한 후 다시 절편을 덮은 방식이다. 하루 만에 시력 회복이 가능하며 수술 후 통증이나 혼탁 증세가 적다. 이에 반해 라섹은 각막 절편 없이 상피를 벗겨내는 방식으로 각막 두께의 제약이 적지만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렌즈 착용해도 시력교정 가능

콘택트렌즈를 오래 착용한 사람들이 시력교정술을 받을 수 없다는 속설도 근거가 없는 얘기다.

각막의 두께는 선천적인 것으로 렌즈 착용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 렌즈를 착용하는 동안 관리를 잘해 눈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시력교정술이 가능하다. 다만 소프트렌즈는 수술 전 1주, 하드렌즈는 2주 정도 착용을 피해야 한다.

◆업무 도중 적당한 휴식 필요

이와 함께 시력교정술 후에는 컴퓨터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도 있다. 물론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은 자제해야 하지만 컴퓨터 사용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대개 라식은 하루, 라섹은 3일 정도 휴식을 취하면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업무에도 큰 지장이 없다. 컴퓨터·스마트폰 등을 장시간 사용할 때는 인공눈물을 넣어주고 눈을 의식적으로 깜빡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시력교정술이 노안 증상을 야기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환자도 많은데 시력교정술이 노안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김진국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대표원장은 “시력교정술의 종류를 선택할 때는 인터넷 검색과 같은 불확실한 정보에 현혹되지 되지 말아야 한다. 안과 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받은 후 자신에게 맞는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yu@metroseoul.co.kr

엄마와 아이 건강 먼저 챙기세요

한국존슨앤드존슨, ‘똑똑 건강클래스’ 개최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최근 서울 큐브에 고라에서 2014 맘&베이비 똑똑 건강클래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존슨앤드존슨 제공

클래스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진행하는 ‘타이레놀’의 ‘아는 것이 약입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준비됐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엄마와 아이의 환절기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출산 전후 엄마 건강관리(조연경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올바른 해열법 및 엄마가 꼭 알아야 할 육아 상식(유철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또 강연 후에는 올바른 어린이 해열제 복용법을 재미있게 설명하는 영상 상영과 즉석 퀴즈 풀이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졌다.

/황재용기자

대웅제약, ‘코리아 베이비페어’ 참가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4 코리아 베이비페어 임신 출산&유아교육전’에 참가했다.

베이비페어는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된 1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박람회다. 대웅제약은 이 자리에서 자사의 습윤 드레싱 브랜드 ‘이지덤’의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종류의 이지덤 라인업들을 선보이는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외자 기업이 성공하려면

뉴스룸에서
임의택 <경제 산업차장>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에 팔렸던 한국 자동차기업들의 행보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GM과 쌍용차, 르노삼성의 얘기다.

이들 기업 중 가장 분위기가 좋은 곳은 쌍용차다. 2009년 3만5296대까지 떨어졌던 판매는 2013년에 14만5649대까지 늘어났고, 지난해 매출액은 3조4849억원에 이른다. 영업 손실액도 수십억원 대로 떨어지면서 올해는 흑자 전환도 예상되고 있다.

한국GM도 분위기가 좋다. 올해 1분기 내수판매를 총 3만4334대로 마감,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세를 보이며 2004년 이래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내수판매를 기록했다. 지난 25일에는 기존 디자인센터를 두 배 이상 확장해 새로 개관하면서 GM 내에서 세 번째 규모의 디자인센터로 키웠다. 한국시장에 대한 본사의 투자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의미다.

반면 르노삼성은 고민이 깊다. 올해 1분기까지 내수는 16.9% 포인트 늘었으나 수출은 39.8% 포인트나 감소했다. 내수가 늘어난 것도 대부분은 스페인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QM3의 덕이 크다. 한국에 투자해서 신 모델을 생산해 이뤄낸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다.

QM3의 히트는 르노삼성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주겠지만 이런 방식이 성공을 거둔다는 건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다. 부산공장의 증설이나 R&D에 대한 투자 없이도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앞으로도 이런 식의 성공 모델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입 모델 판매로 회사가 영위된다면 여타 수입차 판매회사들과 다를 바가 없다.

르노삼성은 2013년 445억원 흑자로 전환했으나, 최근 사측은 희망퇴직 기간을 연장했으며 대상범위를 MP(기장)에서 P3(직원)까지 확대해 노조 측에 강제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불응하는 대상자들에게 사측은 생산직에서 사무직으로 전환을 종용하거나 노동 강도가 가장 높은 공정으로 강제 전환배치를 실시했다.

지금 르노삼성은 한국시장에 대한 확실한 투자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르노삼성차를 구입하고 믿어주는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언제 등질지 알 수 없다. 쌍용차에서 기술만 빼간 상하이자동차의 전철을 르노그룹이 답습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겉만 '세계 속의 한국' 속살은 '후진국'

정론직설
유병팔 <언론인>

우리나라는 지금 세월호 참사로 열흘이 넘게 패닉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처구니없게 희생된 수많은 인명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보내면서 온 나라가 망연자실이다. 유례없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 이후 총체적 부조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비탄에 빠졌다. 우리들의 서글픈 자화상이 민낯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끔찍한 대형 참사를 수차례 겪고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1990년 서해 페리호 사고 이후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겪은 우리는 안전 불감증을 조금도 치유하지 못했다. 이번 참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당주의, 무책임의식으로 빚어진 인재(人災)의 극치다.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을 자랑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만년 후진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해줬다. 위로는 정치권과 재계, 그리고 교육계 등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서민에 이르기까지 기본윤리의식이 잡혀 있지 않다. 빠른 시간에 경제성장은 이뤘지만 모두가 천민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

이번 참사에서 보여주듯이 고위공직자가 희생자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다가 옷을 벗기도 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선거 후보자는 유족 대표로 둔갑하다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또 어느 장관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다 인터넷상에는 근거 없는 악성 괴담, 유언비어와 모욕적인 내용이 수두룩하다.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소름끼칠 악성 글이 판을 치고 있다. "수능 경쟁자가 줄었다" "유족들은 보상금으로 해외 여행갈 생각을 하니 좋겠다"는 것은 고사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내용도 있다. "정부가 선거 때문에 시신을 방치하고 있다" "사고는 국정원이 사주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 사고는 미군 잠수함 때문"이라는 유언비어까지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000 달러로 선진국의 문턱을 넘보고 있는 우리 국민이 이 정도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지성인 노벨 문학 수상자 가오싱젠이 "한국은 분명 역동적인 나라이지만 정신적인 빈곤을 이겨내지 못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충고한 말이 새삼 실감난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국민이 마음가짐 하나만이라도 반듯해진다면 조그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포토프리즘 · 다시 나타난 '거리공연'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싶은 거리에서 한 청년이 간이 무대를 만들고 버스킹을 하고 있다. 최근 날이 좋아져 다시 거리로 나왔다는 이 청년은 "국민들의 정서가 전체적으로 가라앉아 있지만 내 음악을 듣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깐이나마 즐거운 마음이 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손진영기자 son@

눈치보기 방송 끝낼 때

기자수첩
양성운 <연예스포츠부 기자>

TV는 우리의 모든 인생사(희노애락)를 담아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슬픔과 비통함만이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사들은 예능과 드라마 등 오락적 요소가 강한 프로그램들을 전면 중단했다. 사고가 발생한 첫 주에는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시사교양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결방하고 뉴스 특보를 내보냈다. 이어 주말간판 예능프로그램까지 전체적으로 결방하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지극히 당연한 방침이었다.

벌써 2주일 가까이 시간이 지났다. 전 국민이 생존자 소식을 기다리며 조조한 마음으로 TV를 지켜봤지만 기적은 없었다. 오히려 뉴스 특보를 통해 선장과 선원들의 초기대응 문제와 정부의 안일한 대처 소식을 지적하며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만 더욱 키우고 있다. 여기에 지나친 속보 경쟁으로 오보가 속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제는 슬픔과 분노에 젖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해 줘야 한다. 마냥 웃으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차분한 가운데 조금이나마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방송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방된 프로그램이 자극적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새로운 콘셉트의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 슬픔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 노력도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의 의무다. 눈치보기식 결방만이 능사는 아니다.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지난 해였다. 수정같이 맑은 카리브 해안에서 파도에 몸을 맡겼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힘을 느끼고 싶어 좀 더 먼 곳으로 몸을 옮겼다. 문득 물이 목에 차오르고 주변에 사람이 보이지 않자 아차 싶었다. 순간 커다란 웅덩이가 파여 있는지 물속으로 그대로 가라앉았다.

뭍으로부터 1백 미터도 채 안 되는 지점이었으나 평소 수영실력이라면 별반 힘들지 않는 거리다. 한 가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물살이 거세게 이는 바다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점이었다. 앞으로 전진하나 싶다가 다시 뒤로 끌려간다. 수심을 알 수가 없는 곳이었다. 얕은 바다 밑이 벼랑처럼 되어 있기도 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필사적이 되었다. 방향을 틀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조금만 더 가자. 숨이 차고 몸에 기운이 빠지려 한다. 파도는 등 뒤에서 계속 몰려오고 나는 잠겼다 떠오르다 하면서 난파선같이 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내 옆으로 플라스틱 보드가 쑥 하고 미끄러져왔다. 어디선가 구조원이 그걸 구명대처럼 던진 것이다.

이제 지금의 시간으로 돌아와 보자. 세월호가 침몰하는 속도는 애초에 그리 빠르지 않았다. 최초의 탈주자들을 구하러 간 해경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셈이다. 불이 난 건물에 소방대원이 뛰어 들어가 생존자를 찾아 살려내는 것과 같은 장면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배가 기울고 물이 들어오면 안에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물리적 환경이 만들어진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뒤집힌 쪽 반대로 이동하거나 또는 창문 가로 몰려가서 구조대가 오는지 애타게 기다리고, 구조원이라도 나타나면 여기 사람 있다고 격렬하게 신호를 보내고 싶게 마련이다. 우리는 어려선 창문 곁에 몸을 기대고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아이들의 마지막 사진도 보았다. 무심한 햇살이 선실 안으로 비치고 있었고, 아직 잠수부 투입을 할 이유가 없는 조건이었다.

완벽한 구조는 조난자의 생존본능에 따른 움직임과 구조대의 재빠른 행동이 정확하게 만나면서 이루어진다. 이 생존본능의 행동방식을 측정하지 않는 구조는 이미 구조가 아니다. 선체가 반 이상 물밖에 있을 때 배안의 절규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회춘누아르
꽃할배
수사대
tvN
평균나이 70세
짱짱맨 할배들이 떴다
매주 금밤 9시 50분 · 5월 9일 tvN 첫 방송
제작 SSD 이순재, 변희봉, 장광, 김희철, 이조희, 김응수, 박은지

무병장수의 비밀, 바나나

지난해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미국인 살루스티아노 산체스 블라스케스 씨가 사망했다.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자신의 장수 비결에 대해 "바나나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 관료인 '천윈' 전 부총리는 타고난 허약 체질이었다. 그러나 매일 식후 바나나 2조각을 섭취한 덕분에 90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미 비투카밤바 지방의 백세 장수 노인들은 바나나로 만든 '예페'란 스프를 매일 즐겨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바나나가 장수의 비결로 알려지면서 바나나가 지닌 영양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바나나에는 남성 생식기 기능을 돕는 '브로멜린'이 함유 돼 있기도 하다. 이 성분은 관절염과 부종·정맥염에 대해 항염증 역할을 한다. 고기와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소화를 돕는다. 특히 바나나에는 백혈구를 구성하는 비타민 B6, 면역 증강 및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다. 그래서 노화 방지 및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글로벌 청과기업 스미투루코리아 관계자는 "바나나는 항산화 작용을 촉진시키는 베타카로틴이 함유돼 노화 방지에 기여한다"면서 "바나나는 열을 가해도 파괴되는 영양소가 적어 다양한 조리법으로 요리해 먹기 좋다"고 설명했다.

/정영일기자

여성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

이대여성암병원·여성건강증진센터 '여성 건강 8대 수칙' 발표

이대여성암병원과 여성건강증진센터 개소 5주년을 맞아 지난 3월부터 여성 건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이 '여성 건강 8대 수칙'을 발표했다.

8대 수칙은 캠페인의 슬로건인 '여성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의 핵심 키워드인 여성, 행복, 사회, 건강 등의 단어들을 이용해 기억하기 쉽게 제작됐으며 여성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건강 습관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원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병원'을 모토로 여성들의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여성 건강의 시작은 정기검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의 생리적으로 섬세하고 민감하다. 특히 사춘기·임신·폐경에 따른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여성 특유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단순한 피로라고 무시할 경우 심각한 질병을 조기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 최신 진단기기를 이용한 간단한 검진과정을 통해 여성의 과반수가 지니고 있는 자궁근종·난소질환 및 각종 악성종양들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어 조기치료가 가능해졌다.

◆섬섬찟 준비한 컬러 푸드 맛있게

초록색 케일, 주황색 당근, 하얀색 양배추, 노랑색 파프리카, 보라색 포도, 빨간색 토마토와 같은 천연색소 음식들은 비타민과 섬유질의 보고이다. 항산화·해독작용·염증방지에 탁월한 신선한 컬러푸드를 충분히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어 암 발생의 3분의 1을 막을 수 있다.

◆행복을 위한 나만의 취미 갖기

자신만의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며 동시에 자신의 소질을 찾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취미활동은 성취감을 높여주며 다양한 친구와 사회를 접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친밀한 인간관계의 소속감을 높여 여성의 외로움과 우울증을 예방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복부 비만은 만병의 근원

세계보건기구(WHO)가 21세기 신종 전염병 중 하나로 비만을 꼽았다. 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성인 비만율은 매년 1.6%씩 늘어져 연간 약 40만명씩 늘어나고 있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 각종 암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켜 생명을 단축시킨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

봉사를 통해 마음을 나누면서 삶을 감사히 여기는 것은 자신의 세로토닌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건강법이다. 세로토닌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실패나 아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는 진통 효과를 얻기도 한다.

◆회복을 위한 하루 7시간 숙면

잠은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자연적 치유 행동으로, 한국인의 적정 수면시간은 7시간이다. 수면장애는 자체로 고혈압, 뇌졸중, 동맥질환, 생리불순, 장애·당뇨 및 비만 등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 술이나 담배, 카페인은 수면의 적임을 기억하자.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 멀리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기나 피부트러블 같은 작은 증상부터 각종 심각한 질환까지 발생시킨다. 복식 호흡이나 스트레칭·명상 등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해 준다면 면역력 증강은 물론이고 '강한 멘탈'을 갖게 되어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하루 30분이상 주 5회 운동

주 5회, 하루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한 살짝 땀이 날 정도로 하는 유산소 운동은 피로 감퇴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적정량의 근육을 만들어 주어 비만을 예방한다. 달리기나 사이클과 같은 운동이 부담스러울 경우 요가나 스트레칭으로 땀을 흘리는 것도 좋다.

/황재용기자

결혼 준비, '선택과 집중'이 필요

프리미엄 혼수·하우스웨딩 독특한 신혼여행지 인기

최근 예비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비슷한 결혼식장과 혼수장만, 뻔한 신혼여행 등 과거 천편일률적인 구색 맞추기에서 벗어나 부부의 개성과 취향에 따른 맞춤형 결혼 준비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정된 비용 안에서 중요도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요소는 줄이는 대신 우선순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혼수를 준비할 때는 저렴한 가격의 여러 제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하나를 사더라도 특별한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모델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올해 들어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판매된 50인치 이상 대형 LED TV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식 역시 짧은 시간, 인사 위주로 진행되는 일반 결혼식보다 둘만의 특별한 날을 즐길 수 있는 하우스웨딩이 주목받고 있다. 하우스웨딩은 일반적인 결혼식장이 아닌 독립된 공간에서 소수의 하객을 초대해 파티처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

무엇보다 신랑, 신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혼식을 만들어갈 수 있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어 새로운 결혼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 대규모 하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절감한 대신 고급 음식이나 독특한 콘셉트의 공간 구성 등으로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다.

또 여행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고 다양한 항공편이 등장하는 요즘, 점차 둘만의 테마를 담은 색다른 장소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나투어의 발표에서도 지난해 1인당 300만원 이상인 고가 상품을 선택한 신혼부부가 2012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멕시코 칸쿤의 경우 전년도보다 매출이 46.4%나 늘었다.

/정혜인기자 hjung6404@metroseoul.co.kr

/삼성전자 제공

크록스, 특별증정 이벤트

크록스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의 달 특별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날을 기념해 이 브랜드의 온라인몰을 통해서 오는 30일까지 아동화를 2족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식물 공부 세트를 증정한다.

아울러 28일부터 5월 5일까지 크록스 매장을 방문해 1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크록밴드 미니 백팩을 증정한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신성아 크록스 마케팅팀 이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고 선물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이를 고려해 고객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의 신발과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장학석기자

꽃 피는 봄, '꽃테라피' 하자

향수 대신 자신만의 향기 제품 선호

최근 소비자들은 짙은 향수보다 은은한 향기가 나는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바디는 물론이고 헤어까지 꽃 향기가 나거나 혹은 꽃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제품은 꽃 향기를 통해 기분을 전환해주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등의 '꽃 테라피' 효과를 준다.

최정은 젬은뷰티공감 원장은 "올봄 들어 샴푸나 헤어 스타일링 시 모발을 촉촉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은은한 꽃 향기가 나는 헤어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이왕이면 향기까지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소비자의 마음이 트렌드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어 제품의 향은 잔향이 짙어 향수처럼 자신을 표현하는 시그니처 향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인위적인 향을 내는 제품보다 은은한 꽃 향기가 나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허벌 에센스의 '핑크 로즈 샴푸'는 화려한 장미와 재스민 등 꽃에서 추출한 다양한 에센스를 탑노트에서 베이스 노트까지 조합해 향기를 선사하는 무실리콘 퍼퓸 샴푸다. 츠바키의 '헤어 오일'은 햇 동백씨앗을 착유한 오일을 담은 제품으로 헤어 코롱처럼 향기로운 플로럴 향이 은은하게 퍼져 기분을 좋게 만든다. 팬틴의 '딥 리페어 에센스'는 은방울꽃을 연상시키는 여성스럽고 우아한 플로럴 향의 모발 에센스로 휴대가 간편해 수시로 건조하고 부스스한 모발에 도포할 수 있다.

◆꽃 추출 성분으로 피부 가꿔

바디제품의 경우 향수 대용으로 좋은 체취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성아22의 '퍼퓸 드 밤숍'은 백합 추출물, 장미 추출물, 코코넛 오일, 쉐어 버터 추출물 등 보습 성분을 함유했으며 아이리스, 돌림 버베나, 라임 등이 혼합된 독특한 향기가 특징이다. 밸비타의 '로즈 넥타 크레쉬 보이스처라이징 바디 밀크'는 로즈 플로럴 워터가 수분을 공급하고, 로즈 씨드 밀크가 수분을 저장해주며 와일드 로즈 성분이 수분의 순환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이니스프리의 '흩날리는 벚꽃 바디 로션'은 제주 왕벚꽃 추출물 성분이 수분을 공급하고 벚꽃 향기를 풍기는 바디로션이다.

스킨케어 제품 역시 클렌징부터 보습까지 꽃 성분을 사용하고 있다. 소망화장품의 멀티숍 뷰티크레딧이 판매하는 '꽃잎초 꽃 순수발효 클렌징 티슈'는 꽃잎 발효조인 히비스커스 순수 발효조와 석류 발효조가 각각 1000ppm씩 함유돼있어 자극 없이 부드럽게 메이크업을 지울 수 있다. 에이솔의 '카멜리아 너트 페이셜 하이드레이팅 크림'은 로즈힙 씨앗유 성분이 자극으로 거칠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동백나무유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꿔주며 꽃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정혜인기자 hyun0404@metroseoul.co.kr

재고로 만든 새옷

신세계백화점이 코오롱과 함께 재고 상품에 새로운 디자인을 입혀 새로운 제품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의류'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신발끈… '없애고 꾸미고'

독특한 디자인의 끈 없는 운동화가 관련 업계에서 속속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푸마는 지난 1992년 육상 선수들의 운동화 끈을 묶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초로 끈 없는 운동화를 출시했다. 이 신발은 끈을 묶는 대신 원형의 디스크 다이얼을 돌려 내부 와이어가 조여지고 풀어지는 방법으로 끈을 대체했다.

푸마 디스크 시리즈는 육상 선수용 운동화를 시작으로 농구화, 테니스화 등에서도 디스크 방식을 적용했다. 최근 디스크 블레이즈부터 새로운 버전의 디스크 2.0, 디스크 트로피컬리아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슬립온 타입에 펌프트 기미제 피팅 기능을 살린 리복의 인스타펌프 퓨리 또한 끈 없는 운동화로 유명하다.

이 제품은 발등의 펌프를 누를 때마다 공기가 주입돼 자신 발에 맞는 피팅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웃도어 브랜드 K2의 운쉐이브(사진)는 갑피의 거미줄 문양이 돋보이는 트레킹화다. 다이얼 방식의 조임 시스템인 보아(BOA)를 활용해 끈을 묶을 필요 없이 와이어로 적당할 수 있어 가벼운 산행이나 트레일 워킹시 끈풀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실리콘 신발끈을 적용한 슈즈랩 제품은 최초로 매듭이 없는 신발끈을 개발해 최근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신발 한 켤레에 12가지 색상의 다양한 신발끈을 엮을 수 있어 스타일 연출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끈 연출법으로 개성을 뽐낼 수 있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 브랜드 제품은 신발끈 매듭 자체가 없어 신고 벗기가 편하고 끈을 묶거나 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데일리 슈즈에 많이 사용한다고 업계 측은 전했다.

/김학철기자 kimc1004@

5060세대 장난감 시장 '큰손'

경제력 바탕으로 고가제품 구매도 55%↑

손주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할아버지·할머니가 늘고 있다. 특히 삼촌·이모 세대인 20~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장난감을 선물해 주는 등 50~60대가 장난감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다.

G마켓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들어 자사의 장난감 구매 고객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고객인 50~60대의 구매량이 전 연령대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로 이 마켓에서 50세 이상 고객의 장난감 구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25% 증가했다. 40대의 구매량은 21% 증가했으며, 20대와 30대의 구매량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장난감 판매량은 4% 늘었다.

품목별로는 고가의 장난감일수록 50~60대의 구매량 증가폭이 컸다. 가격이 5만~8만원대로 상대적으로 고가에 속하는 작동완구의 경우 50세 이상 고객의 구매량이 53% 급증했다. 40대는 18%정도 증가한 반면 20대와 30대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작동완구 전체 성장률은 1%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했다.

10만원 이상의 고가제품이 많은 승용완구·자전거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올 들어 전체 승용완구 판매가 15% 증가한 가운데 50~60대의 구매량은 지난해 대비 55%로 성장폭이 가장 컸다. 40대와 30대는 각각 23%, 13% 증가세를 보였다. 20대는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승용완구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유아용 전동차가 30~40만원에 달하는 등 장난감 가운데 가장 고가에 속한다.

/정성우기자 ultra@

황금연휴, 외출 전 '배수구 청소' 필수

주방 거름망은 햇볕, 욕실에도 구멍 막아야

5월 황금연휴 기간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물론 욕실 배수구 청소까지 퀴퀴한 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퀴인의 원인 모든 퀴퀴한 냄새를 잡기 위해서는 주방 배수구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방 배수구는 음식 찌꺼기로 인한 악취발생의 진원지이자 세균과 곰팡이에게 최고의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악취제거와 살균을 위해서는 소다를 2~3숟가락 넣어주고 그 위에 식초를 떨어뜨리고 30분 정도 지난 뒤 끓인 물을 부어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거름망을 햇볕에 말려놓으면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주방 배수구에 이어 집안 악취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곳은 욕실 배수구이다. 특히 머리카락과 각종 이물질이 끼어 물이 고이면 배수구 냄새뿐 아니라 곰팡이 냄새까지 견딜 수 없게 된다.

욕실 배수구 악취는 베이킹소다와 식초 한 컵 씩을 배수구에 부은 후 거품이 생기면 뜨거운 물을 붓고 배수구 입구를 막아놓으면 된다. 욕실 청소는 집을 비우기 직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짧은 시간 동안 배수구의 물때·냄새·세균제거를 하고 싶다면 애경에스티의 '홈즈 퀵크린 배수구샷' 같은 전문 세정제를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배수구 청소 후에는 원두커피 찌꺼기나 레몬을 이용해 실내공기를 정화하면 좋다. 커피전문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두커피 찌꺼기를 집안 곳곳에 두면 탈취와 제습효과를 볼 수 있다. 레몬 역시 집안에 남아있는 잔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다.

/정혜인기자

미스터Q　토마토　신의　참 좋은 시절　화신

시대의 아이콘에서 명품 배우로

신비주의 벗은 미시 스타 김·희·선

깊은 눈빛 '신의'
돌직구 '화신'
사투리 '참 좋은 시절'

김희선(37)이 배우가 되고 있다. 90년대 아이콘으로 이미지로만 먹고 사는 모델형 배우, 국어책 읽는 연기자라는 비판을 받아온 그는 2007년 결혼 후 SBS 드라마 '신의',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에 출연해 농익은 연기 내공을 뽐내보이고 있다.

김희선은 '미스터Q'(1998), '토마토'(1999), '요조숙녀'(2003) 등 다수의 트렌디 드라마로 신드롬을 일으켰다. 여신 외모는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높은 목소리 톤은 상큼 발랄한 그의 매력을 더 가치 있게 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돼 돌아온 그는 대중과의 거리를 바짝 좁혔다. 한 예능프로그램에선 "토하고 마시고 토한다"며 자신의 별명을 '토마토'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SBS 예능프로그램 '화신'에선 19금 토크의 달인 신동엽과 콩트 호흡을 맞추며 거침없는 발언을 일삼아 '화끈한 언니'로 불렸다.

결혼과 출산 후 한결 편안해진 그는 자연스럽게 유부녀 스타로 대중과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 '신의' 연기 인생 전환점

"스타의 허울을 벗고 배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2012년 '신의' 출연을 앞둔 김희선이 밝힌 각오다. '스마일 어게인'(2006) 이후 6년, 결혼 후 5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김희선은 퓨전 사극에 도전했다.

감정 연기는 성숙해졌고 입으로만 전달하던 대사는 눈빛과 어우러져 한결 자연스러워졌다. 고려 무사 최영(이민호)과 시공간을 초월한 사랑에 빠지는 성형외과 의사 유은수를 보며 김희선 이외의 여배우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 역을 도맡아 했던 과거와 달리 '신의' 속 김희선은 하이틴 스타 시절 발랄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깊어진 눈빛 연기로 사랑을 통해 약 600년의 세월을 거슬러 보겠다는 유은수의 애잔함을 표현했다.

◆ '화신' 신비주의 완전 타파

김희선은 90년대 대표 미인으로 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신의' 이후 예능 프로그램 '화신'(2013)의 진행자(왼쪽 사진)로 이색 행보를 펼친 그는 모든 신비주의를 벗어 던졌고 아줌마 김희선으로 전 세대의 주목을 받게 됐다.

신동엽, 윤종신이라는 예능 고수 사이에서도 김희선이 돋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털털한 말투와 유쾌한 성격 덕분이었다. 거침없이 말하고 호탕하게 웃었다. 걸 그룹이 출연하면 "남편이 정말 좋아하는 멤버"라며 대놓고 질투하는 귀여운 모습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모유 수유를 "짬짬"이라 표현하는 등 돌직구를 날려 시청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구라, 봉태규를 투입해 재정비에 들어간 '화신'에서도 19금 발언을 서슴지 않아 천하의 김구라를 단숨에 제압하는 재치와 예능감을 뽐냈다.

◆ '참 좋은' 20년 연기 내공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오른쪽)에서 김희선은 외적 변신까지 시도하며 20년 연기 내공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쫄딱 망한 부잣집 둘째 딸 차해원을 맡아 대부업체 직원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억척녀로 살아가고 있다.

데뷔 후 처음 사투리에도 도전했다. 청바지에 대충 묶은 듯한 머리와 경상도 사투리는 김희선의 변신을 더욱 극대화한다. 툴툴거리는 듯한 빠른 대사 처리와 과격하게 들리지만 정감 있는 사투리 구사가 역할과 김희선을 일치시킨다.

김희선 측 관계자는 "배우로서의 관점을 넓히고 싶었다. 50부작을 소화하는 것부터 사투리 구사 등 많은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도전하게 됐다"고 출연 배경을 설명했다.

상대 배우 이서진과의 로맨스도 절[illegible]다. 극중 두 사람은 학창시절 집주인 딸과 식모 아들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성인이 된 후 봄꽃같은 사랑이 아닌 속으로 삭혀서 더 안타까운 관계를 그려내고 있다. '신의'에서 한층 더 나아간 내면 연기로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전효진 기자 soonhal@metroseoul.co.kr

BACK TO THE 90's

청춘나이트 2014

김건모 · DJ DOC · 조성모 · 룰라 · 현진영 · 김원준 · DJ춘자

2014. 06. 07. SAT pm 6:00 |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방송가 정상화 초읽기

지상파 특보 '볼 일' 없다

세월호 관련 팟캐스트·JTBC 뉴스 등 주목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후 종편 뉴스와 팟캐스트 시사 프로그램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특보가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이자 시청자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최근 가장 주목 받은 프로그램은 JTBC '뉴스9'이다. MBC 기자 겸 아나운서 출신인 손석희(큰 사진)가 진행하는 '뉴스9'은 사건 발생 초기에는 자사 기자가 생존한 단원고 학생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해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손석희 앵커의 생생한 현장 진행과 심층적이고 진정성 있는 분석 보도가 이어지면서 포털을 연어 종편 뉴스 시청률 1위에 올랐다. 최근 다이빙벨과 관련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인터뷰도 '뉴스9'가 내보냈다.

인터넷과 팟캐스트로 선보이는 '고발뉴스'와 '팩트TV'도 화제다. '고발뉴스'와 '팩트TV'는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자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

있는 팽목항 현장 상황을 단독 생중계했다. 이 생중계에서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타사 기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편 역시 세월호와 진도VTS의 교신 내용 조작 의혹을 새롭게 제기해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방송이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제작진은 27일 세월호 편 재방송을 긴급 결정했다.

이 밖에 해직 언론인들이 만든 '뉴스타파'와 '국민TV', 트위터가 진짜 언론이라는 기치를 내건 팟캐스트 '트위터 매거진 — 새가 날아든다'도 인기를 끌고 있다. /채신화기자

드라마·일부 예능 재개 가요·코미디 결방 지속

사실상 휴업상태였던 방송가가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뉴스특보 체제로 운영됐던 지상파 3사는 지난 21일부터 일일드라마 재개를 시작으로 방송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이는 드라마만 한정돼 있으며 예능 격전지인 일요일 오후 시간대 연예 오락프로그램은 27일까지 결방 방침을 유지했다.

MBC '일밤-아빠 어디가'는 지난 방송분을 스페셜 형식으로 다시 내보냈으며 '진짜 사나이'는 2주 연속 결방키로 결정됐다.

지난 19일 정규 편성대로 단행하려다 시청자들의 뭇매를 맞고 뒤늦게 결방 결정을 내린 KBS2 '해피선데이'도 결방을 이어 가며 '동물의 왕국' '걸어서 세계속으로' 등 시사 교양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SBS도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다큐멘터리나 시사 교양 프로그램으로 대체 편성했다. 오전에는 '도전 1000곡' 대신 '심장이 뛴다-모세의

지난 21일부터 방송재개한 MBC '기황후'

지난 25일부터 방송재개한 tvN '갑동이'

기적'이 방송됐으며 오후 '일요일이 좋다' 역시 과거의 '룬드라-꿈의 컴퍼니' '정글의 법칙-야생 친구들'로 대체했다.

약 2주가량 지속됐던 예능 프로그램 결방은 28일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상 방송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블쪽 역시 지난 25일 tvN '갑동이'의 방영 재개를 시작으로 가요·코미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규 편성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CJ E&M은 "tvN '꽃보다 할배', '스토리온 '마스터 코리아' 등은 방송이 재개됐지만 tvN 'SNL 코리아' '코미디 빅리그' 등 코미디 프로그램은 당분간 결방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생중계 예정이었던 'UFC 172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전' 대회는 녹화중계로 편성 변경됐으며 방송일은 아직 미정이다.

/김지민기자

호텔 킹

엔젤 아이즈

주말 안방극장 '소소한 전쟁'

'호텔킹' '엔젤아이즈' 경쟁 속 동반부진

주말 드라마가 소소한 시청률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 5일 동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방영 재개까지 SBS 주말극 '엔젤아이즈'와 MBC '호텔킹'은 시청률에서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며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 26일 '엔젤아이즈' 5회는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집계 기준(이하 동일) 전국 평균 10.8%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호텔킹'(8.2%)을 앞섰다.

첫 방송 시청률 6.6%라는 저조한 성적에서 시작한 '엔젤아이즈'는 2회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결방 후 첫 방송에서 무려 2%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이날 '호텔킹'은 8.2%로 지난 13일 방송된 4회 시청률 11.6%보다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호텔킹'은 첫 방송부터 11.7%를 기록하며 '엔젤아이즈'를 크게 앞섰으나 2회(10.9%)부터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해 결국 5회 방송에서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

이 같은 시청률 역전극이 펼쳐진 데는 드라마 내용 자체의 재미와 함께 재방송 횟수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엔젤아이즈'에서는 수완(구혜선) 자신이 그토록 찾던 첫사랑 동주(이상윤)가 달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극적인 장면이 그려졌다. '호텔킹'에선 차재완(이동욱 분)과 이중구(이덕화)의 갈등 장면이 등장했다.

또 두 드라마의 본방송 시작 전인 26일 오전 시간대에 '엔젤아이즈'는 SBS/SBS 플러스 드라마스 채널N 등 4개 채널을 통해 지난 방송분(3·4회)을 방영했으나 '호텔킹'의 경우 MBC와 올레브TV 단 두 개의 채널에서만 재방송됐다. /김지민기자

이태종 신곡 '아름다운 참사랑' 화제

베테랑 가수 이태종(사진)이 내놓은 신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태종은 오랜 귀농 생활 중 인연을 맺은 식선 선생의 시를 노랫말로 옮긴 신곡 '아름다운 참사랑'을 발표했다.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가 사랑하기 전 먼저 사랑하는 것이요.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가 거절할 때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요' 등의 가사가 인상적인 곡으로 이태종은 "연예계와 다른 삶을 살고 싶었던 곳에서 이 시는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왔다"며 "요즘 대중가요처럼 즉흥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다. 남녀간의 애정이나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아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마음 속에 오래 남게 될 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사랑에 대해 깨달은 점을 노래로 담고 싶었다"며 "이 곡은 쾌락을 추구하는 요즘 세상에서 원래 있었으나 잊고 살았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노래"라고 밝혔다.

30년째 가수활동을 해오고 있는 이태종은 1995년 배용준 주연의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의 주제곡 '너 아니면 하는 나'로 인기를 얻었다. '아름다운 참사랑'은 '나는 가수다'에서 임재범·조관우의 전성기를 다시 찾아준 유명 작곡가 하광훈과 2010년 발표한 앨범 '파워인생' 이후 4년 만에 발표한 신곡이라 팬들의 관심이 크다. 이번 곡에도 하광훈이 편곡을 맡았다. /탁순호기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역린

썰렁했던 극장가 다시 활기

'…스파이더맨2' '역린' '표적' 등 화제작 잇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비수기가 겹쳐 관객이 급감한 극장가가 화제작의 개봉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2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는 전날인 토요일에 53만3210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 수는 114만9456명으로 개봉 4일 만에 100만 명을 넘었다.

한주 전인 19일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또 다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의 할일 관객수가 10만7904명인 것과 비교하면 약 5배 오른 수치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의 개봉 첫주 토요일 할일 관객수(51만4739명) 수준과 비슷하다.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간인데다 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해 한동안 극장가에 관객의 발길이 끊겼으나 화제작이 개봉하면서 관객수가 느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말부터는 극장가가 침체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영화 화제작과 가족 영화가 한꺼번에 선보이기 때문이다.

30일 현빈의 복귀작인 '역린'과 류승룡의 액션 도전작 '표적'이 동시에 개봉한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5월을 맞아 다음달 1일에는 애니메이션 '리오2', '몬스터 왕국', '드래곤 기사단'이 관객들을 찾는다.

다음달 22일에는 '엑스맨' 시리즈의 신작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도 개봉할 예정이어서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흥행 돌풍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원기자 bjo427@metroseoul.co.kr

'엘리지의 여왕' 55년 파노라마

조영남도 내달 9일 공연

가요계 두 베테랑 가수가 어버이날을 맞아 명품 무대를 릴레이로 선사한다.

'엘리지의 여왕' 이미자는 다음달 7~8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2014 이미자 55주년 기념 어버이날 디너쇼'를 개최한다. 1959년 '열아홉 순정'으로 데뷔한 후 55년 동안 함께해 온 노래들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구성해 관객들과 추억 여행을 즐기는 구성으로 무대를 꾸민다.

자신의 3대 히트곡인 '동백아가씨', '기러기 아빠', '섬마을 선생님'을 비롯해 '여자의 일생', '흑산도 아가씨', '열아홉 순정' 등의 히트곡을 들려준다. KBS1 '가요무대'의 김동건이 진행을 맡고, 이미자의 노래를 듣고 가수의 꿈을 키웠다는 독일 여가수 로미나가 특별 무대를 마련한다.

이미자는 공연기획사를 통해 "내가 55년 동안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해 준 팬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들의 크나큰 사랑과 박수 그 힘으로 버텼다. 항상 마지막 무대인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하겠다"고 말했다.

'영원한 가객' 조영남은 9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2014 조영남 어버이날 디너쇼'를 연다. 조영남 디너쇼는 지난 10년간 티켓이 단 한 장도 남지 않은 '완전 매진' 사례를 기록했다.

데뷔곡 '딜라일라'를 비롯해 '화개장터', '제비' 등 히트곡과 1970년대 명동 음악다방 세시봉에서 부르던 곡들을 선사한다. 최근 자신의 칠순을 기념해 발표한 신곡 '대자보'도 라이브로 들려준다. 자신이 작접 작곡한 신곡을 내놓는 건 '화개장터' 이후 26년 만이다.

/유순호기자 suno@

이미자

조지 클루니 '품절남' 되나

영국 변호사, 독신 고집 꺾고 약혼

할리우드의 소문난 바람둥이 조지 클루니(사진)가 '품절남'이 된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그동안 여러 미녀스타들과 숱한 염문을 뿌리면서도 독신을 고집한 클루니는 최근 극비리에 약혼식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는 영국의 인권 변호사 아말 알라무딘이다. 최근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변호를 맡아 관심을 모은 변호사다. 현재는 전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의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올해 초 클루니의 영화 '모뉴먼츠 맨: 세기의 작전' 시사회에 참석하고 탄자니아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할리우드 여배우 못지 않게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두 사람의 약혼은 최근 이들이 모델 신디 크로포드, 그의 남편 랜디 거버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약혼 반지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미국 일간지 뉴욕포스트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두 사람은 약혼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어 하지만 행복해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 연예 매체 TMZ닷컴은 "벨리 프리스톤 스테이시 키벌러 루시 리우 르네 젤위거도 잡지 못한 조지 클루니를 변호사가 데려갔다"며 흥미롭게 소식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지 클루니 측은 '사생활에 대해선 말을 아끼겠다'는 말로 부인하지 않아 사실상 약혼을 인정했다. /석진희기자

프랑스 쌩마르크합창단 방한

내달 9일부터 전국 순회 '코러스' 수록곡 등 선사

세계적인 소년소녀합창단인 프랑스 쌩마르크합창단(사진)이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한국 관객을 찾는다.

이들은 다음달 9일부터 안양·평택·화성·춘천·대전·부산 등에서 전국 순회 공연 '2014 프랑스 쌩마르크합창단 특별초청공연'을 열며 18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쌩마르크합창단은 120여 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합창단이다.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10~15세의 소년 소녀들로 구성된 이 합창단은 전 세계에서 총 1000회가 넘는 공연을 펼쳤다.

프랑스에서 900만 관객을 모으며 대 흥행한 영화 '코러스'의 주역으로도 유명하다. 합창단의 솔리스트였던 장 밥티스테 모니에가 영화에 주인공으로 출연했고, 나머지 멤버들도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참여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최정상의 솔리스트를 포함한 26명의 소년·소녀들이 아름다운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한다. '코러스'의 삽입곡 '너의 길을 보아라'는 물론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 그레고리안 성가, 유명 오페라 아리아, 세계 민요, 한국 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박지원기자

노승열이 3라운드 17번 홀에서 신중하게 퍼팅하고 있다. 리디아 고가 멋지게 벙커샷을 하고 있다(작은사진) /AFP 연합뉴스

노승열 첫 PGA 우승 눈앞

노승열(23·나이키골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눈앞에 뒀다.

노승열은 27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애번데일의 루이지애나 TPC에서 열린 취리히 클래식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뽑는 절정의 컨디션으로 7언더파 65타를 기록했다. 1~2라운드를 보기 없이 끝내며 공동 3위로 3라운드를 시작한 노승열은 중간합계 18언더파 198타로 단독 1위에 올라섰다. 2위 키건 브래들리(미국)와는 2타차다.

2라운드까지 단독 1위였던 벤 마틴(미국)은 이날 1타를 잃어 14언더파 202타 공동 4위로 밀려났다. 로버트 스트렙(미국)이 15언더파 201타로 단독 3위에 이름을 올렸다.

2008년 아시안투어 미디어 차이나 클래식, 2010년 유럽프로골프투어 말레이시아오픈, 지난해 PGA 2부 투어 등에서 우승한 바 있지만 PGA 투어 우승은 한 번도 없다.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11개 대회 연속 컷을 통과하며 꾸준히 활약해온 노승열은 손목 부상으로 3주간 공백을 보낸 뒤 이번 대회로 복귀했다. 노승열은 이번 대회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노란 리본을 달고 경기에 나섰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우승에 바짝 다가섰다.

리디아 고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레이크 머세드 골프장에서 열린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기록했다. 중간합계 9언더파 207타로 선두 스테이시 루이스(미국·10언더파 206타)에 1타 뒤진 2위를 기록했다.

제니 신(22·한화)이 6언더파 210타로 단독 3위에 올랐고, 박희영(27·하나금융그룹)은 5언더파 211타로 단독 4위를 기록했다. 세계 랭킹 1위 박인비(26·KB금융그룹)는 김효주(19·롯데), 강혜지(24) 등과 함께 공동 9위(2언더파 214타)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주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재미교포 미셸 위(25·나이키골프)는 1언더파 215타로 공동 13위다.

/유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백규정 KLPGA 첫 우승

백규정(19·CJ오쇼핑·사진)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27일 경남 김해의 가야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를 기록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9언더파 207타로 장하나(22·비씨카드)를 2타 차로 제치고 1억원의 우승 상금을 거머쥐었다.

국가대표 출신인 백규정은 지난해 2부 투어인 드림투어에서 활약했고 시드전을 거쳐 올해 KLPGA 투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마지막 라운드 11번 홀에서 단독 1위 자리를 장하나에게 내주기도 했지만 16번 홀에서 다시 승기를 잡으며 우승에 쐐기를 박았다.

장하나는 7언더파 209타를 기록해 단독 2위에 올라 준우승 상금 575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KLPGA 투어 상금왕 장하나는 시즌 상금 1억6365만원으로 상금 순위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유순호기자

이청용 시즌 2호골

'블루 드래곤' 이청용(26·볼턴·사진)이 시즌 2호 골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청용은 27일 영국 사우스요크셔주 셰필드의 힐즈버러 스타디움에서 열린 셰필드 웬즈데이와의 2013~2014 챔피언십(2부 리그) 45라운드 경기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1-0으로 앞선 전반 19분 페널티지역 밖에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대 중앙에 공을 넣었다.

이로써 2월 9일 번리전에서 득점한 이래 2개월여 만에 골맛을 봤다. 시즌 7번째 공격포인트다. 이날 볼턴은 3-1로 승리했다.

한편 윤석영(24)이 뛰는 퀸스파크 레인저스(QPR)는 밀월과 1-1로 비겼다. 윤석영은 이날 그라운드를 밟지는 못했다. 박주영(29)이 부상으로 귀국한 왓퍼드는 더비카운티 원정에서 2-4로 졌다. /박은희기자 ehpark27@

긱스 '위기의 맨유' 구했다

감독대행 첫경기 4-0 승

위기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에 임시 사령탑으로 자리한 라이언 긱스(사진)가 귀중한 승리를 맛봤다.

지난 21일 경기 이후 경질된 데이비드 모이스 감독을 대신해 긱스 감독 체제로 경기에 나선 맨유는 27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13~2014 프리미어리그 홈경기에서 노리치시티를 4-0으로 꺾었다.

홈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긱스가 감독석에 앉았고 은퇴한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도 경기를 지켜봤다. 또 긱스와 퍼거슨 감독과 함께 맨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폴 스콜스, 니키 버트, 필립 네빌 등이 코치진으로 보좌하며 첫 경기를 전면 지원했다.

간판 스타 루니가 전반 41분 페널티킥으로 포문을 열었다. 후반 3분에도 추가골을 넣었고, 후안 마타도 후반 15분과 18분 연속 골을 넣으며 완승을 이끌었다.

맨유는 승점 3점을 보탰지만 여전히 7위(승점 60)에 머물렀고 6위 토트넘(승점 66)과의 격차도 6을 유지했다.

영국과 네덜란드 언론들은 맨유의 새 사령탑으로 루이스 판할 감독을 유력하게 점쳤다. 판할 감독은 네덜란드 출신으로 독일 바이에른 뮌헨,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명문 구단을 지휘한 경험이 있다.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감독 중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날 긱스의 감독 데뷔전이 승리로 끝나기 직전 관중석에는 그와 현역 시절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스콜스의 이름이 관중석에서 연호됐고, 7년간 함께 뛰었던 박지성의 이름도 불렸다고 축구 팬들은 주장했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27일

■잠실

KIA	000	000	010	1
LG	000	000	02X	2

[illegible]

■목동

삼성	200	000	000	2
넥센	000	000	001	1

[illegible]

■사직

SK	100	000	000	1
롯데	003	000	00X	3

[illegible]

■마산

두산	000	000	000	0
NC	001	220	10X	6

[illegible]

프로축구 전적 27일

수원	0	1	서울

[illegible]

포항	3	0	인천

[illegible]

상주	1	1	울산

[illegible]